

코스트코 대표 “우선 입점 검토”

정현을 익산시장, 강력한 유치 의향 전달 · 조민수 대표, 대체 부지 3~4곳 둘러봐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가 익산을 방문해 전북권 입점 대상 지역으로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스트코 측에 대체부지 등 다양한 협의안을 제안하며 강력한 유치 의향을 전달했다.

정 시장은 14일 익산시청을 방문한 조 대표 등 경영진에게 익산의 지리적 강점을 설명하며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정 시장이 지난달 말 직접 코스트코 본사를 방문해 강력한 유치 의향을 전달한 데 대한 답방 차원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익산은 KTX익산역을 포



합해 사통팔달 도로망을 갖춘 교통의 중심지이자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라며 입점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익산은 시장성이 검증된 지역으로 잘 검토해보겠

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코스트코 측에서 익산지역 내에서 여러 부지를 검토하고 있고 다양한 협의안을 놓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익산 우선 입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간법인이 추진하는 왕궁물류단지는 지난 2021년 12월 (주)코스트코 코리아와 5만㎡ 부지에 대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조건에는 지난해 연말까지 각종 인허가와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기로 계약했지만, 인허가와 공사 모두 진행되지 못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 최초 세계문화 전시·체험 시설인 익산글로벌문화관이 도내 대표 학교기업들과 함께 K뷰티·테라피를 선보이며 체험영역 확대에 나섰다.

“다양한 관학 협력 사업 진행”

익산글로벌문화관, 원광대·원광보건대 학교기업과 ‘K뷰티’ 선배

전북 최초 세계문화 전시·체험 시설인 익산글로벌문화관이 도내 대표 학교기업들과 함께 ‘K뷰티·테라피’를 선보이며 체험영역 확대에 나섰다.

익산글로벌문화관은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학교기업 ‘윌네이저’와 원광보건대학교 학교기업 ‘WM힐링테라피’와 함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익산글로벌문화관 조남우 관장과 원광대학교 윌네이저 조영삼 대표, 원광보건대학교 WM힐링테라피 백준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각 기관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교육·교육 활동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윌네이저는 뷰티 및 식품 분야 전문기업으로 원광대학교 안악캠퍼스, 생명과학부, 생명환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 및 참여교원들의 연구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이전 및 시제품제작 등에

주력하고 있다. 원료제조, 포장, 분석, 품질관리, 결산, 마케팅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킴으로써 학생의 취·창업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원광보건대학교 WM힐링테라피는 21세기 미용분야를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미용인 배출을 목표로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화장품과 교수와 학생이 연구한 자연주의 화장품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을 살린 현장실습에서 제품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취·창업 인큐베이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익산글로벌문화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뷰티, 테라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남우 익산글로벌문화관장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학 협력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데이터 공유·활용방안 세부계획 수립

데이터 중심 일하는 행정 추진

군산시가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맞춰 선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중앙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맞추어 객관적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군산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공공데이터포털과 지방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 등을 통해 파일, API의 형태로 246건의 데이터를 개방·공유했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신규 발굴해 개방·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질높은 데이터 개방을 위해 주

기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특히 올해는 오류 데이터를 식별하고 개선하는 등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운영을 추진한다.

데이터 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신규 발굴하고 현 데이터 개방시스템 및 내부 새움행정시스템에 게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데이터 수집 가능 사이트 및 분석 우수사례 공유로 데이터를 보는 안목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행정에 접목시킬 계획이다.

시는 데이터 교육을 통해 역량강화

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 2월 27일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가를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교육을 활용해 데이터를 다루는 습관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기존 업무 방식에서 탈피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정이 익숙하지 않고 업무에 불편화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문화예술아카데미 본격화... 문화적 삶의 질 높여

익산시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시민문화예술 교육을 본격화한다.

시는 미술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교육프로그램부터 성인 작품연구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시민 문화 행복생활권 구축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익산예술의전당에서는 문화예술아카데미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5개 강좌에 총 9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각 강좌당 10회 수업으로 진행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어린이 조형수업 ‘미술로 표현하기’ △성인 서양화 ‘수채화, 드로잉 표현 기법’ △성인 한국화 ‘한국화(민화) 표현 기법’ △일상의 소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성인 디탄공예 △성인 조형수업 ‘3D 펜아트’ 등이다.

‘미술로 표현하기’ 수업은 형태 구성과 색감을 중심으로 한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어린이 대상 수업으로 20명의 인원을 모집해 조각가 안광식이 강사로 나서게 된다.

서양화가 이주일이 강사로 나서는 ‘수채화, 드로잉 표현기법’의 수강생 모집인원은 총 20명으로 기초 드로잉과 수채화의 특성을 파악해 자유롭게 채색할 수 있는 표현기법을 배울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한국화 ‘한국화(민화) 표현 기법’ △일상의 소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성인 디탄공예 △성인 조형수업 ‘3D 펜아트’ 등이다.

‘미술로 표현하기’ 수업은 형태 구성과 색감을 중심으로 한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어린이 대상 수업으로 20명의 인원을 모집해 조각가 안광식이 강사로 나서게 된다.

서양화가 이주일이 강사로 나서는 ‘수채화, 드로잉 표현기법’의 수강생 모집인원은 총 20명으로 기초 드로잉과 수채화의 특성을 파악해 자유롭게 채색할 수 있는 표현기법을 배울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의료분야 ‘JOB 콘서트’ 성황

익산시가 의료분야 취업문을 활짝 열어 취업 예정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성공취업 디아로움 취업박람회’가 익산청년시청에서 도내 의료관련 기관 및 기업과 의료보건 전공 청년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또한 콘서트에는 원광대학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익산병원, 동군산병원, 남원의료원, 하림산업이 참여했다.

시는 매일 셋째 주 화요일마다 청년시청에서 개최되는 취업박람회를 통

해 지역내 의료기업 및 기관을 알리고 청년취업을 심도있게 돕기 위해 Job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의료기관 및 기업 인사담당자와 커피 등 다과를 함께하며, 편안한 상태에서 1:1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선배 멘토링 상담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참가한 구직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년취업 JOB콘서트’ 개최 한달 전부터 지역 의료기관 전공 청년구직자 80명을 모집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한국섬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가 섬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페러다임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섬의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한국섬진흥원(이하 한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섬 지역 특성화사업을 한섬원에 위탁 수탁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해 소득사업과 마을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에 따라 각 섬마다 최대 50억원까지 투입돼 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2023년 신규사업 대상지 15개 중 개야도, 어청도, 야미도, 비안도 4개 섬이 선정됐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목요일 야간창구 이용 온라인 여권 신청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군산시에도 여권 발급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일 평균 100여 건의 여권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3,667건, 2021년 3,569건에 불과하던 여권발급이 지난해 18,571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지난 2월까지 7,829건 여권을 신청해 여권신청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요일과 평일 오후 시간에 여권 신청 및 교부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간대에 방문하는 시민들의 신청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여권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시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1매 지참하고 신청서(열린민원과 비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해 빈칸 절차를 거쳐 발급된 여권은 등기 우편을 신청하면 원하는 주소지에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